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柳淇馨 (釜山大學校)

1. 들어가는 말

- 다양한 복지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 반면, 최근 한국은 연간 3 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통해 배출되는 사회복지인력 공급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과잉과 수요 불일치 등과 함께 사회복지 교육의 질과 실습 교육의 부실성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유사 직종 혹은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따른 사회복지 유사 자격증 출현, 법적 근거 없는 민간단체에서의 관련 자격증 발급 등은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직이 서비스 전문화와 더불어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사회복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현황

- 사회복지 교육기관은 총 439 개소이며, 대학교(2 년제.4 년제) 52%, 대학원 44%, 원격대학 4%로 구성. 입학정원 약 3 만 8 천여명 중 대학교(2 년제.4 년제) 60%, 대학원 22%, 원격대학 2%로 구성

< 전국 사회복지 교육기관 현황(2007 년) 및 연도별 기관 수 >

구분(2007 년) /연도	사회복지(사업) 학과/전공 개설수	관련전공 학과/전공 개설수	학과/전공 합계	교육 기관수	입학정원 (명)	2001 년	2003 년	2007 년	
전문대학(80)	51	60	111	80	9,961	55	78	80	
대학교(149)	116	93	209	149	12,682	93	110	149	
대학원 (194)	일반	51	10	61	58	1,619	16	26	58
	특수	90	81	171	125	6,365	45	51	125

	전문	8	16	24	11	188	-	-	11
원격대학 (16)	2년제	2	6	8	2	930	-	2	2
	4년제	13	12	25	14	6,120	-	11	14
총 계		331	278	609	439	37,865	209	278	439

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 사회복지학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 204곳은 제외함

- 대학교의 사회복지 과목 개설현황: 1 개교당 평균 10 개 과목 개설,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분야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에 편중되어 있음. 그 외 전공과목 개설비율은 대학교에 비해 전문대학이 매우 낮음(현재, 사회복지사 2 급 취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4 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전공 필수 10 개 과목, 선택 4 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 교육 실태: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임교원 부족, 과도한 수강인원 및 복수전공자, 교과목의 비표준화, 학계·현장간의 연계부족 등의 문제 발생

3. 문제점

◦ 교육수요의 과잉

- 최근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증대에 대한 기대와 어렵지 않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대량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현상들이 증가.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예측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졸업후 취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이 학생들을 과다모집.
 - 이에 따른 학생정원(잠재적 노동공급량)과 교육의 질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 통제 시기 또한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 (통제주체가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등 주요기관에서 통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노동력의 질 저하

- 교육수요의 과잉은 교육인력의 절대부족과 교육과정의 수준을 저하시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함. 이는 결국 추후로 사회복지노동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공자없이 교육하는 기관이 15%정도 존재함(전임교원 부족, 과도한 수강인원 및 복수전공자, 교과목의 비표준화, 학계·현장간의 연계부족 등을 전공교육의 문제로 지적됨)

- 사회복지노동력의 과잉은 사회복지노동시장에서 극히 일부의 인원만이 취업되어 비록 높은 경쟁률에서 우수한 인력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의 수요입장에 있는 기관에서는 내부노동시장관리(훈련 및 재교육, 승진체계강화, 보상체계 및 사원복지 프로그램 등)에 소홀하거나 방임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사회적으로 방임되면 사회복지는 저급노동직으로 인식되고, 결국 고급인력이 잔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하지 않으려는 등 사회복지노동력의 질적 저하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어렵게 됨.

◦ **장단기적 사회복지노동력 수요 예측 소홀**

- 교육수요의 과잉과 그에 다른 사회복지노동력의 과잉공급 현상은 장단기적 사회복지노동력 수요에 대한 예측 소홀에 그 원인 있음.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 즉 수요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그에 따른 교육수요 증대를 가져옴.

4. 사회복지교육관련 최근 주요 논의

◦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법안 마련**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에서는 보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2007.12.14 신설), 2009.1.1 시행함(사회복지사업법 제 13 조제 2 항 신설).

◦ **사회복지 교육의 내실화**

- 필수 10 과목에서 12 과목으로 증가하는 방안고려(선택과목 증가도 고려)
- 사회복지교육과정의 표준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편찬하는 『사회복지학교과목지침서』에 의한 교육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 준비**

-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주도로 전국의 사회복지전공교육(4년제, 2년제) 프로그램의 조사증임
-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산하에 인증과 평가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인증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